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농협중앙회장의 역할' 전문가 좌담회 개최

차기 회장 중앙회 개혁 적극 나서야

차기 중앙회장은 신용사업중심의 농협중앙회를 농민조합원과 일선 농·축협, 경제사업 중심으로 개혁할 각오를 다져야 한다.

지난 17일 한농연과 한국농어민신문이 공동으로 '농협중앙회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좌담회는 오는 25일에 치러질 통합농협 제2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차기 농협중앙회장이 해야 할 과제와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후보자들이 어떠한 각오를 다져야 하는가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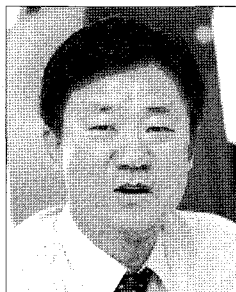
이날 좌담회에서 서정의 한농연 회장은 "그동안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경제사업에 소홀한 구조인 만큼 새로운 회장은 농민조합원을 위해 중앙회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회장은 또한 농협중앙회 개혁의 방향을 '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연합회 체제 전환 또는 지역본부장 선출직 전환, 시군지부 폐지' 등을 제시했으며 "농협중앙회가 변하지 않으면 한국농업의 회생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품목의 데이터베이스화 농축산물 수급조절 △농협중앙회장 4년 단임제 도입 △농협중앙회 이사회 개편 △시군



황민영/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류진춘/경북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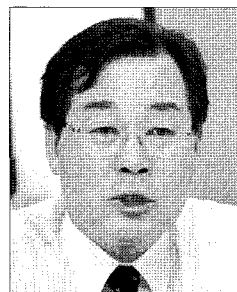
서정의/한농연 회장



나상옥/목포 무안·신안축협 조합장



김기선/용인 구성농협 조합장



김재복/농협 농촌발전기획단 단장

금고 평잔의 1% 지역 환원 △전상무 2년 계약 연봉제 도입 및 임직원 급여체계 개선 △조합장 비상 임체제로 전환 등을 공식 요구했다.

김재복 농협중앙회 농업농촌발전기획단장은 “향후 지속적인 개혁으로 상호금융 금리 인하, 농축산물 유통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쌀 관세화 유예 협상 국민대토론회 열려

‘관세화 유예’, ‘국민공감대 형성’ 한목소리
쌀 정책 선언적 제도에 그쳐 실망

지난 17일 성공적인 쌀 협상을 위한 국민 토론회가 대통령 자문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이번 쌀 협상 국민 대토론회에서 농민 및 각계 전문가들은 쌀 협상을 앞두고 범국민적인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의견과 정보를 교류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홍세 한농연 정책부회장은 “정부의 쌀 정책은 선언적 제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홍세 부회장은 또 “정부는 쌀 개방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관세화 유예를 관철시키려는 자세를 취해야 하며 쌀이 농가의 주 소득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곡수매제 폐지, 공공비축재 감소 등 쌀값 하락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성의한 쌀 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특히 “개방 폭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한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도 미흡하고 각종 제도는 선언적으로만 돼있을 뿐 세부사항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고,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산하연합회 소식

학교급식 광양운동본부 '주민발의 청구' 에 나서

한농연 광양시연합회(회장 이창기)가 참여하고 있는 학교급식 조례제정 광양운동본부가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과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제정을 위해 주민발의 청구에 나섰다.

지난 5월 5일까지 취합된 주민발의 서명자는 주민발의 요건인 2,500명이 넘는 4,700여명이며 오늘 광양지역 최초로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발의라는 방법으로 정식 청구를 신청하게 됐다.

이창기 한농연 광양시연합회 회장은 “무엇보다도 광양지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신 광양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히고, “향후 조례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의회,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며,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에도 참여하여 전국적인 확대를 위한 활동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의 농업계 소식

농민연대, 창립 1주년 기념식 · 후원회 가져



지난 19일 농업기술자협회전국농민연대(상임대표 정재돈)가 창립 1주년 기념식과 더불어 후원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기념식을 통해 한-칠레 FTA반대, 칸쿤 각료회의 저지 투쟁, 쌀 지키기 10만 농민대회 등 농업, 농촌, 농민문제의 해결을 주도해온 지난 1년의 사업을 평가하고 올해의 농정개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재돈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농업의 유지와

발전이 철학적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가능의 문제로 되도록 하겠다.”고 하고 “DDA 농업협상 대책과 식량자급을 법제화, 통일대비 농지보전대책, 농업협동조합의 농민본위의 개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같은 전국농민연대의 활동을 위해 새롭게 고문과 자문위원구성도 이루어졌다. △고문은 강정일, 고송자, 김남용, 김동희, 김병태, 김성훈, 김인호, 박재일, 송남수, 이우재, 이길재, 원철희, 정영일, 정현찬 등이며, △자문위원으로는 박홍수, 강기갑, 현애자, 권광식, 김병문, 김영철, 김충실, 전정희, 윤석원, 황민영, 박영범, 민승규, 박진도 등 농민대표로 17대 국회에 입성한 3명의 국회의원 당선자와 학계·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전국농민연대는 오는 6월 농협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17대 국회 개원에 앞서 ‘농협개혁선포식’을 갖고 농민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경해 열사 기념사업회(가) 출범 초읽기

‘WTO가 세계 농민들 다 죽인다.’며 지난해 멕시코 칸쿤에서 WTO 세계화에 반대하며 우리 농업을 지키시다 산화하신 고 이경해 열사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지난 19일 용산구 호텔캐피탈에서 한농연이 주관하는 ‘제1차 이경해 열사 후원사업 준비위원회’가 열렸다.

그동안 장수군농민연대에서 묘소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이경해 열사의 업적을 높이 기리기 위한 추모사업은 농업계와 전국민이 함께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후원사업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날 준비위원회에서 오는 6월 11일에 범농업계가 참석하는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법인인 이경해열사기념사업회를 출범시킬 계획을 정했다. **민농연**

